

세계유산 신안 갯벌 세계로 뻗는다

'국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갯벌 통합관리체계 구축 국제협력 전문기관 협약...유네스코 봉사단 운영 지원·청소년 교육 등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가 신안으로 확정되면서 신안군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 지역으로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10월 해양수산부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 공모'에 우수한 평가를 받고 국내 2번째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 보전을 위한 '국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이하 보전본부)를 유치했다.

신안 갯벌은 총 17만7340ha로 유산지역이 11만 86ha인 것을 감안하면, 신안 전 지역이 유산지역이 나 닮았다.

이번 보전본부 선정 과정에서 물새 137종, 대형 저서동물 857종, 저서규조류 375종, 해조류 152

종, 염생식물 54종, 어류 54종 등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 종류만도 총 2169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러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계 최고수준의 기초생산량(215.7mg/㎡)에 기반해 저서규조류, 해조류, 대형저서동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종다양성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안갯벌은 전 세계에서 독특하면서도 가장 복잡한 수문학적 연안 퇴적체와 높은 종다양성을 가진 다양한 생태계가 확인되면서 탁월함을 인정받았다.

보전본부는 앞으로 한국 갯벌 통합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갯벌 통합조사, 생태계 복원사업 등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갯벌 활성성 증진, 갯벌

가치를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리아스식 해안 갯벌은 다른 갯벌과 달리 서식지가능이나 자연정화, 자연재해 및 기후조절 등이 뛰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신안군은 이처럼 탁월한 가치를 지닌 신안갯벌을 세계화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 세계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은 최근 국제협력 전문기관인 (사)더나은세상과 '신안군 세계유산정책 및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인 (사)더나은세상은 국제협력 전문기관으로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NGO, 미국 국무부, 정부기관 등과 협력해 국제교육·활동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국제사회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 (신안 갯벌 포함)을 알리고, 갯벌 생물권 보전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안군과 (사)더나은세상은 협약에 따라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전과 국내외 인지도를 향상 위한 상호협력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세계유산자원봉사단' 운영 지원·협력 ▲청소년 세계유산 교육 및 국제교류를 위한 상호협력 등을 추진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국립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는 한국의 갯벌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신안군과 (사)더나은세상은 신안 갯벌의 교육·홍보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갈라파고스제도와 케냐국립공원처럼 전 세계인이 찾고 배우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은 2023년 실시계획을 시작한다. 시설물 조성과 운영으로 1366억원의 생산유발과 700억원의 부가가치, 2500여명의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안군이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 보전을 위한 '국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를 유치하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 지역으로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신안군 지도을 사육도 갯벌. <신안군 제공>

완도군, 수산물 안전성·원산지 조사 강화

연말까지 전복·파래·굴 등 대상

완도군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역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안전성 조사 대상은 관내 양식, 위판장 등에서 생산·판매되는 전복, 납치, 굴, 파래, 김 등이며, 중금속과 방사능, 항생 물질, 금지 물질 등 안전성 허용 기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한다.

군은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온 곳은 출하 금지 조치를 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

조에 따라 재검사 실시 후 적합이 나오면 출하 금지가 해제된다.

군은 유해한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위해 매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가을 행락철과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 단속도 병행한다.

수산물 원산지 단속은 월 2회 실시하며, 각종 젓갈류와 소금류, 농어, 광어, 돔, 납치, 중국산 낙지류 등 원산지 표시법에 위반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허위 표시를 중점으로 확인한다.

15일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더불어 원산지 단속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고, 부정 유통 사전 차단 및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군 "대파 연중 생산"

안정생산 유통 공모 선정

영광군이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대파의 안정적인 연중생산에 나선다.

영광군은 전남농업기술원의 맞춤형 미래 전략작목 육성 사업공모사업에 선정, 9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광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일년내 내 균일한 물량을 작업하여 시장에 출하 할 수 있도록 노지와 시설 혼합 작형재배를 시범 적용하고 작목반 독자적인 선별 출하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의 교섭력을 확대하여 인근주산지와 차별화할 계획이다.

연구관을 특별 초청해 진행했으며 영광군 대파산업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영광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영광대파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삼호중 '세계 일류' 선정

'18만t급 LNG 이중연료 살물선' 세계일류상품 선정 세계 첫 2020~2021년 2척 건조...시장 점유율 100%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한 '18만t급 LNG 이중연료 추진 살물선' (사진)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됐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회'에서 '18만t급 LNG 이중연료 추진 살물선'이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석유제품 운반선(2015년) ▲LPG 운반선(2016년) 등 6건도 재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현대삼호중공업이 세계일류상품 인증을 받은 상품은 모두 7건으로 늘었다.

세계일류상품은 전년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연간 50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수출 규모가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인 상품 중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이면서 5% 이상인 제품이 선정 대상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앞서 ▲초대형 컨테이너선(2007년) ▲원유 운반선(2007년) ▲자동차 운반선(2014년) ▲LNG 운반선(2015년) ▲대형



해남군, 내년 예산 편성 주민 참여 확대

해남군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해남군은 지난 8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김행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2022년도 해남군 재정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 참여 관련 예산 시책 및 추진 실적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 분야별 주민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2023년 주민제안사업 등 총 77건, 34억 원을 심의의결했

다. 관광, 복지, 농수산 분야 등 9개 분야에서 간담회와 부서 검토 의견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번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 시행하고 있다. 2022년 주민직접 제안의 확대를 위해 해남군 홈페이지 내 '주민참여예산 신청 게시판'을 신설했으며, 올해 6월에는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세미나를 개최해 14개 읍·면에서 접수된 사업들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했다.

진도출란 전시회 성료...100여점 전시

'2022 진도출란 업체품 전시회'에서 박종진씨가 진도군수상을 수상했다.

진도군에 따르면 '2022 진도출란 업체품 전시회'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진도군향토문화회관 기획전시실 2층에서 진도난우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출란 업체품 전시회와 나눔 행사를 열었다.

난초의 아름다운 잎을 감상하는 출란 업체품 전시회는 우수작 100여점이 전시되었으며, 무료출란 나눔 행사도 같이 진행했다.

출품작 가운데 진도난우회 박종진 회원의 작품 '금강산'이 진도군수상을 또 차고욱 회원의 작품 '사계'가 진도군의회회장의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도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11월 선착순 30분에 한하여 이장비 지원해드립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자연장 전문

수목장*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

062) 464 - 9190